

지난 주 말씀 요약 (12 / 30)

제 목 : 버릴 것과 취할 것

성경말씀 : 고린도후서 9 : 6 ~ 12

2012년을 마무리 하고 새해를 마지 하면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이 있다. 우리 생활에서 버릴 것도 많고 취할 것도 많이 있지만 그걸 다 논할 수는 없고 본문 말씀에 의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본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연보(헌금)에 대한 말씀이다. 당시 이스라엘에 흉년과 기근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믿음을 전수받고 신령한 은혜를 받은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도와주기로 했다.

이 선한 일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권면과 그에 대한 축복의 말씀인데, 단순히 헌금 하는 문제만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말씀들이다.

버릴 것이 무엇인가 ?

첫째, 인색함이다.

“인색”의 원어는 λύπη(뤼페)인데 슬픔, 고통 등의 뜻이 있다. 하나님 앞에 헌금 하는 것을 비롯하여 무엇을 하든지 고통스러워하거나 슬퍼하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인색하게 하는가?

헌금을 하는 것이 허비하는 것 같고 자기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부담을 느끼며 그래서 슬퍼하고 인색하게 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일을 할 때나 직장에서 일 할 때도 그런 마음 때문에 몸을 사리며 인색하게 하는데, 이것을 버려야 한다.

둘째, 억지로 함이다.

“억지”의 원어는 ἀναγκη(아낭케)인데 강제, 강요, 압박, 곤란 등의 뜻이 있다. 즉 강요받거나 압박을 받아서 어찌할 수 없이 안 할 수도 없어 곤란함을 느끼며 억지로 하는 것이다.

직장에서도 이렇게 일하면 능률도 안 오르고 힘들게 되며 가정 일에도 이렇게 하면 불화가 일어나고 불편하게 된다. 헌금을 하거나 믿음의 봉사를 할 때도 이렇게 억지로 하게 되면 자신도 힘이 들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셋째, 보이려고 함이다. (이사야 1:12)

“보이려”의 히브리 원어 “라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생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데 많이 사용했는데, 사람들이 수많은 제물(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나타내 보이려고 제물을 바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물을 헛된 제물이라 했고 자신을 뽐내고 보이려 하는 제물은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질책을 하셨다. 마가복음 12:44절에서는 여러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하고 가난한 과부가 두 렵돈 헌금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자들의 많은 액수의 헌금보다 과부의 적은 돈이 더 많은 헌금이라고 칭찬을 하셨다. 그러므로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 어디에서든지 헌금을 하거나 어떤 봉사를 하고 직임을 감당할 때도 자신의 한 일을 과시하고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이것은 이제 버려야 한다.

취할 것은 무엇인가 ?

첫째, 즐거움이다.

무슨 일이든지 죄가 되지 않은 이상은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 가정에서 밥을 짓는 세탁을 하든, 직장에서 어떤 사무나 직무를 감당하며 일을 할 때도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 또한 교회에서 믿음의 일을 하거나 헌금을 할 때도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

본문에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거”는 원어 ἡλαος(힐라오스)인데 호의, 즐거운, 기분 좋은, 희망 이란 뜻이 있다. 이러기에 어떤 일을 하든지 좋은 마음으로 희망을 갖고 즐겁게 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람들도 좋아한다.

둘째, 감사함이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엡5:20)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8)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즉 헌금이나 봉사로 구제나 가정 일이나 직장 일이나 교회의 직분을 맡아 감당할 때에도 “나에게 이렇게 헌금 할 수 있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건강한 몸과 좋은 환경을 주셔서 봉사를 하고, 이러한 직무와 직분과 가정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사람에게도 감사하며 해야 한다.

셋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인색함을 버리고, 억지로 함을 버리고, 과시함을 버리고,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모든 일을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하셔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다 잘되게 하신다.

그때 자기가 잘해서 잘된 것처럼 자기가 공로를 취하고 영광을 받으려 하면 안 된다. “나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고 자신은 온유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시금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더욱 축복하신다.

대한 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 @ 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28 (새 찬송가 1, 28)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 토지를 적시어 썩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 같이

○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 아 멘 -

찬 송 : 500 (새 찬송가 446)

기 도 : 목 사

성경봉독 : 목 사 : 이사야 55 : 6 ~ 13 구약 1035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내 생각 내 길은 너희보다 높다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424 (새 찬송가 380)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4 (새 찬송가 4)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1 월 안내]

남, 문정용 조상희 공옥열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

사 회 : 문정용 장로 (다음 김정환 장로)

기 도 : 오정순 권사 (다음 노인숙 권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사무엘상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사 회 : 이자한 집사 (다음 홍희석 집사)

기 도 : 김정숙 집사 (다음 김영님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벽 기도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열왕기상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상) 문정용, 홍익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상)

청년부 예배 (주일오전 10시) 김정환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요 밤 기도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도 신앙 표어 말씀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제직 월례회

2013년 1월 월례 제직 회의로

이 자리에서 오후 예배 후 3시 10분에 모입니다..

제직들은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2. 부흥 사경회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성도들의 영혼의 잘됨과 행복을 위해

2013년 신년 축복사경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강사 : 총회장 이 창 옥 목사님 (경기광명 성산교회 시무)

일자 : 2013. 1. 21. (월) ~ 24 (목) 오전까지

풍성한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금요기도회

1월 11일 밤 8시, 금요기도회는

한나 여전도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4. 새해 축복 심방예배

2013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소원하는 심방예배를 원하시는 분은

청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681~7001, 010~3861~7009)

가정, 직장, 사업체, 회사 등 어느 곳이나 좋습니다.

5.교구장 구역장 모임

1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에 교육관에서

각 교구장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 바랍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송양호 님 진신숙 님

금호 @

☺ 박인숙 님

현대 @

지난 주 말씀 요약 (1 / 6) 2013

제 목 : 내 생각 내 길은 너희보다 높다
성경말씀 : 이사야 55 : 6 ~ 13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누리던 유대 백성들,
풍부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잡신들을 섬기며 세상의 타락된 문화에 빠져 범죄 하고 나간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고 더욱 거역하므로 그 징벌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침략으로 망하고, 남쪽 유대 백성들에게도 여러 가지 징벌이 내려졌다.

유대 백성들은, “아 !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봐,” 근심걱정하며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유대 백성들을 격려하고자 오늘 말씀을 주셨다.
내가 너희의 잘못을 징계했다고 해서 너희를 버리거나 미워하는 줄 아느냐 ?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과연 그러하다. 이스라엘이나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 해도, 누구나 징벌이 없이 다 잘됐으면 생각하고 그런 길을 가고자 했다. 그러다 징벌을 받아 고달파지니까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으로 생각하여 낙심하고 주저앉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백성들의 잘못을 징벌할지언정, 하늘나라 그 찬란하고 영광스런 축복에 참여시키려고 회개시켜 바로 세우고자 하는 뜻이요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백성들은 땅에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축복, 곧 하늘 같이 높이신 생각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높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인도하시는 길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우리 생각은 땅에 것이나 생각하고 근시안적이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인도하시는 길은 천국에서까지 영원한 행복과 상급을 누리도록 하시는데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첫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라.

참새 두 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은 나쁜든 어찌 하나님의 뜻하심이 없이 일어나겠는가?

설사 내 생각대로 안 되었다 하여도, 내 뜻은 땅에 것이요

하나님이 뜻은, 하늘 같이 높이신 원대(遠大)하고 고상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는 일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현실 앞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내 자신의 생각에 안 맞는다고 반항하거나 뒤집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을 살피서 그 앞에 굴복을 해야 한다.

둘째, 기쁨으로 나아가라.(12절 상)

어떤 일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대로 이뤄졌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그런 뜻과 계획을 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된 것은 곧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셨기 때문이다. 그 때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내 생각, 내 계획보다 천배나 더 잘 된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야 경배 드려야 한다.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의 그 현실을 못마땅해 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기뻐하며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셋째, 평안히 인도를 받고 순종하라.(12절 상)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안 된 일에 대하여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며 비난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한다. 내 뜻대로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된 일을 원망 불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된 것을 원망 불평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는 안 된 일이라 해도 평안한 마음으로 인도를 받고 그에 따르는 말씀들을 순종해 나가야 한다.

넷째, 가라 하는데 까지 가고, 서라 하면 서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하심의 대부분은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 나타나 있다. 그렇기에 성경 말씀에 행하라 하면 행하고, 멈춰 서라하면 그 자리에 서야 한다. 말씀에, 가라 하는데 서 있거나 서라 하는데 계속 가는 것은 둘 다 잘못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말씀보다 더 나가다가 사단에 종이 되고(마16:22)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말씀에 행하라 하는데 자기 맘대로 멈춰 섰다가 왕위에서 폐함을 당했다.(삼상15:17~23)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쳐올지 알 수 없으나 위 네 가지의 자세로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

- ① 산과 작은 산들(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변해 노래를 한다.12절
- ② 가시 찔레가 변하여 잣나무 꽃 석류가 된다.(전화위복)13절
- ③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신28:1-6)

우리 생각 우리 뜻은 기껏해야 땅에 것들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현재와 장래에 영원한 축복들이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사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6. 30 (새 찬송가 2, 14)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 ◎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 ◎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 ◎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 나귀 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 ◎ 네가 평안할 때 나 여호와가 네게 말하였으나
-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 ◎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 아 멘 -

찬 송 : 19 (새 찬송가 65)

기 도 : 문정용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예레미야 22 : 18 ~22 구약 1086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좋은 습관 축복 받을 습관을 길러라.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490 (새 찬송가 433)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김정환 장로)

☆ 송 영 : 3 (새 찬송가 5)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1 월 안내]

남, 문정용 조상희 공옥열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사 회 : 김정환 장로 (다음 홍의남 장로)

기 도 : 이옥심 권사 (다음 노인숙 권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사무엘상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사 회 : 홍희석 집사 (다음 김선무 집사)

기 도 : 김영님 집사 (다음 임동순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열왕기상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본 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상)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상)

청 년 부 예 배 (주 일 오전 10시) 김정환 장로

청년이며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직 분 자 세 미 나

오늘 오후 2시 예배 후 3시부터 본당에서
본 신암교회 모든 직분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대상 :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

각 교구장 구역장, 남녀 각 전도회 임원

각 부서장, 각 찬양대 지휘와 대원들,

2. 부 흥 사 경 회

2013년 신년 축복사경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강사 : 총회장 이 창 옥 목사님 (경기광명 성산교회 시무)

일자 : 2013.1.21(월) 밤7:30분부터 ~ 24일(목) 오전까지

새벽 5시, 오전 10:30분, 밤 7:30분 .

풍성한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사경회 초청장이 준비되었습니다. 한 분이 한 분씩

가족이나 이웃에게 전하여 초청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3. 금 요 기 도 회

1월 18일 밤 8시, 금요기도회는

사라 여전도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4. 새 해 축 복 십 방 예 배

2013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소원하는 십방예배를 드립니다.

청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681~7001, 010~3861~7009)

가정, 직장, 사업체, 회사 등 어느 곳이나 좋습니다.

신암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암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최선화 님 노현정

부영 @



황 정 님 윤정원, 승원

풍암 @

지난 주 말씀 요약 (1 / 13) 2013

제 목 : 좋은 습관 축복 받을 습관을 길러라
성경말씀 : 예레미야 22 : 18 ~ 23

여호야김 왕은 유대 21대 왕이다.

11년이나 왕으로 통치를 했으나 마침내는 바벨론에 잡혀 가 짐승의 하나처럼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데, 유대 백성들 중에서 그 누구도 여호야김이 적에게 잡혀 가 짐승처럼 죽음을 당하는 것을, 애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18절)

집에서 키우는 개나 짐승이 죽어도 슬프고 안타까운 것인데 하물며 자기들의 왕인데, 이렇게도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일인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21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장성하여 왕이 되어서도 그 습관대로 하다가 망한 것이다.

우리말에도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듯이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의 올 한해의 습관은 연초인 지금 만들어지며 이렇게 한 해 한 해 한 것이 우리의 평생의 습관으로 굳어져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습관이란 무엇인가?

어떤 일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다보면 그것이 익숙해지고 굳어져 생활의 한 부분이 되고 자리 잡아진 것이 습관이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살펴서 잘못된 것은 끊어서 중지 시키고, 좋은 것은 살려서 그것이 우리 습관으로 자리를 잡도록 가다듬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마음의 습관을 좋게 길러야 한다.

여호야김 왕이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거역하던 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그것이 습관이 돼서 망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마음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 없는가?

우리 마음은 길가인가? 돌밭인가? 가시덤불인가? 옥토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서 참으며 순종해서 백 배, 육십 배, 결실하려는 것이 축복받을 마음이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자기 마음과 생각과 형편에 그 말씀이 맞으면 잘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며 순종하려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에 합당치 않고 자기 환경과 형편에 어렵게 여겨지는 말씀들은 듣기를 싫어하고 거역하며 반항을 한다.

한 두 번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잘못 된 것이 무의식중에 자주 반복되어져서 우리의 습관이 된다면 여호야김 왕처럼 망할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 형편에 맞든지 안 맞든지, 설사 우리 계획과 생각에 안 맞는다 해도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 우리 마음에 심어나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맘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 이런 좋은 마음이 반복되어 익숙해져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 마음에 심고 가꾸어 나가고 이것이 우리 마음의 습관이 되고 우리 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

둘째, 말의 습관을 좋게 길러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이나 사회활동 또한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해서 밤잠을 못자며 고민하고 고통스러워 한 일이 여러 번 있을 것이며, 우리 자신 또한 알게 모르게 좋지 않은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망 불평 험담 비난하는 말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 착하고 좋은 말을 해야 한다.

착하고 좋은 말을 하다보면 마음으로 연결되어져 마음이 착하고 좋아지게 되고, 마음이 착하고 좋아지면 다시 말로 연결되어져 말을 착하고 좋은 말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마음과 말이 순환을 하여 그 사람의 인격이 점점 거룩해져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잘못된 말을 하다보면 그게 마음으로 연결되어 마음까지 잘못된 마음으로 굳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런 사람은 축복에서는 점점 멀리 떠나가게 된다.

셋째, 행동의 습관을 좋게 길러야 한다.

우리엔 좋은 행동도 있지만 잘못된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진 것도 많이 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우리는 점점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행동을 잘 살펴서 잘못된 행동은 버리고 좋은 행동을 익혀서 바로 해 나가야 한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행동을 익혀가고, 무엇이든지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게으름부리다 늦게 참석하는 것을 버리고, 이제는 무슨 일이나 시간에 앞서 참여하는 좋은 행동의 습관을 익혀가야 한다.

우리 주위에는 음주, 흡연, 도박, 게임, 쇼핑중독 등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과 생활이 습관이 되어 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가족까지 힘들게 하며 불행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의 습관을 착하고 좋게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2013년 한해가 헛되게 되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착하고 좋은 습관을 길러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 회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들이 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36 (새 찬송가 1, 36)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라
 -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며
 -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상이 큼이라. - 아 멘 -

찬 송 : 516 (새 찬송가 427)

기 도 : 문정용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마태복음 5 : 1 ~ 12 신약 5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373 (새 찬송가 503)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김정환 장로)

☆ 송 영 : 4 (새 찬송가 4)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1 월 안내]

남, 문정용 조상희 공옥열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사 회 : 홍의남 장로 (다음 조상희 집사)

기 도 : 노인숙 권사 (다음 임수정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사무엘상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사 경 회 (다음 김선무 집사)

기 도 : 사 경 회 (다음 임동순 집사)

말씀증거 : 사 경 회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열왕기상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상)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상)

청 년 부 예 배 (주일오전 10시) 김정환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부흥 사 경 회

2013년 신년 축복사경회를 내일 밤 7:30분에 시작합니다.

강사 : 총회장 이 창 옥 목사님 (경기광명 성산교회 시무)

일자 : 2013.1.21(월) 밤7:30분부터 ~ 24일(목) 오전까지

새벽 5시, 오전 10:30분, 밤 7:30분 .

풍성한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잘 준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사경회 초청장이 준비되었습니다.

한 분이 한 분 이상 가족이나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2. 금 요 기 도 회

1월 18일 밤 8시, 금요기도회는

주일학교 유초등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3. 새 해 축 복 심 방 예 배

2013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심방예배를 드립니다.

청원을 하시면 좋습니다.(681~7001, 010~3861~7009)

가정, 직장, 사업체, 회사 등 어느 곳이나 좋습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최선화 님 노현정

부영 @

☺ 황 정 님 윤정원, 승원

풍암 @

지난 주 말씀 요약 (1 / 20) 2013

제 목 :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말씀 : 마태복음 5 : 1 ~ 12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인생들이 받을 여덟 가지 복을 말씀하셨으니 곧 본문 말씀이다.

사람이라면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해서 세상 사람들도 오복을 말했는데, ① 수 : 오래 살고, ② 부귀 : 부자로 귀하게 되고, ③ 강녕 : 건강하고 평안하며, ④ 유호덕 : 좋은 소리를 듣고 덕이 있으며, ⑤ 고종명 : 죽음이 비참하지 않고 고상하여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럴듯한 말이다.

그러나 오복을 아무리 크게 많이 누렸다 하여도, 죽음과 더불어 모든 것이 없어지고, 최악의 심판 지옥 형벌을 당하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만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 할 것이다.

팔복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일이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에도 그로 인한 상급과 영광을 누리는 일이라,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이루어 가야 할 것인데, 이 시간에 그를 다 증거 할 수가 없으므로, 오늘은 일곱째 복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이다.

화평, 평화, 화목, 화친 등이 다 비슷한 뜻의 말이나 개개인이나 작은 규모에서는 화평, 화목을 쓰고 국가적 국제적으로는 화친이나 평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그렇다. 개인이나 가정, 직장이나 사회, 국가나 국제적으로 그 어디 어느 곳에서든지 불화와 불평, 분열과 반목을 일으키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화평과 화합과 협력관계를 이루어 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

화평케 하는 일이 사람의 감정과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으나, 그것은 잠간이며 한계에 부딪쳐 끝이 난다.

그러므로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자기 자신이 누릴 때에야, 비로소 화평케 해 나갈 수가 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죄인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다.

① 그렇기에 모든 인생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죄 값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어여뵈 여기셔 화평 관계가 된다.

②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므로 하나님과 화평관계를 누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불편한 관계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은 대로 하나하나 순종해야 한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서로의 말을 거역하면 화평이 깨어 지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과의 화평관계가 깨어진다.

③ 회개를 해야 한다.

믿고 말씀대로 순종한다해도 언제 어느 일에서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이 때 얼버무리지 말고 즉시로 회개하는 것이다. 우리 죄 값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면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

회개하므로 용서를 받았을 때에 그 평안함 기쁨과 소망은 회개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 이 때 화평이 충만하게 임하고 이 화평은 삶의 모든 것을 이겨낼 원동력이 된다.

둘째, 주위를 화평케 해 나가야 한다. (고후 5:18,19)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화평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그 심령이 천국이 되어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위와 이웃들을 화평케 해 나갈 수가 있다. 주위와 이웃을 화평케 해 주려면, 주위 사람들이 믿음을 갖도록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섬기며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이웃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므로 하나님과 화평관계가 이뤄졌을 때, 그때 나 자신과 이웃들과의 진정한 화평관계가 이뤄지며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지상천국이 이뤄진다.

이는 단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부터 하나님과 화평관계를 유지하려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중단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때에 조금 씩 조금 씩 이루어져 나간다.

<< 화평케 하면 받는 복 >>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화평케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우뚝 서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우뚝 서게 되면 영, 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현재와 천국에 찬란한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사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6. 14 (새 찬송가 2, 26)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말씀하시길

◎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하며

○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하였다

◎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 네가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 아 멘 -

찬 송 : 84 (새 찬송가 134)

기 도 : 목 사 (다음 김정한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디모데후서 2 : 19 ~ 22 신약 344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168 (새 찬송가 180)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홍의남 장로)

☆ 송 영 : 3 (새 찬송가 5)

☆ 축 도 : 목 사

섭기는 사람들 [2 월 안내]

남, 김정한 조상희 공옥열

여, 노인숙 최은희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루디아 헌신예배

사 회 : 조희숙 집사 (다음 조상희 집사)

기 도 : 이선화 권찰 (다음 임수정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사무엘상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김선무 집사 (다음 박종복 집사)

기 도 : 임동순 집사 (다음 채해경 집사)

말씀증거 : 김상진 목사 (이사야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열왕기상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상)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상)

청 년 부 예 배 (주일오전 10시) 김정한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부흥 사 경 회 .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사경회를 잘 마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몸과 맘과 물질을 기울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으나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더 복이 있습니다.

2. 금 요 기 도 회

2월 1일 밤 8시, 금요기도회는

주일학교 중, 고등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3. 새 해 축 복 심 방 예 배

2013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심방예배를 드립니다.

청원을 하시면 좋습니다.(681~7001, 010~3861~7009)

가정, 직장, 사업체, 회사 등 어느 곳이나 좋습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황 정 님 윤정원, 승원

풍암 @

☺ 임용아 님

일신 @

지난 주 말씀 요약 (1 / 27) 2013

제 목 : 귀히 쓰는 그릇이 되자
성경말씀 : 디모데후서 2 : 19 ~ 22

본문 20절에 말씀한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다.
“그릇”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을 뜻한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금 그릇, 은 그릇, 나무나 흙 그릇 같은 여러 모양의 성도들, 각양 각층의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위 말씀을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 있다.
교회에서 금이나 은그릇 같은 성도만 좋고 귀하게 쓰임 받으며, 나무나 질그릇 같은 성도는 아주 가치가 없고 천하게 쓰이는 나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잘못 이해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뜻은,
금 은 그릇 같은 성도나 나무 질 그릇 같은 성도 그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 값을 주고 산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일에서 귀하게 쓰임 받느냐? 아니면 천하게 쓰임 받느냐? 여기에 있다.
“귀하게”와 “천하게 쓰임 받는다”의 어원도 오해를 하고 있으니, 어떤 일 그 자체가 귀한 일이나 천한 일이라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어떤 일든지 다 존귀한 일이다.
“귀하게”의 원어 “티메”(τιμή)는 영광, 존경, 가치, 명예로운, 유용한 등의 뜻이 있는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매일 존귀하게 유익하게 쓰임 받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대기업 사장이 어떤 사람을 매일매일 자주 불러서 일을 맡기며 쓰는 것이 영광스럽고 존귀한가?
아니면 1년에 한두 번쯤만 불러서 쓰는 것이 존귀한 일인가?
물론 매일매일 자주 불러서 쓰임 받을 때 영광스러운 것이다.
“천하게”의 원어 “아티미아”(ἀτιμία)는 불명예, 치욕, 수치 등의 뜻인데 일 자체가 천한 허드레 일이 아니라, “공동체 바깥”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쫓겨났다”는 뜻으로, 일하는 자리에서 곧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 받는 자리에서 밀려 났다는 뜻이다.

21절 말씀이 위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 ”
누구든지 : 금, 은, 나무, 질그릇 등 그 어떤 그릇 그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 이런 것은, 이 앞서 말씀한 14~19절 말씀의 내용으로 크게 4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말씀대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임을 받는다.

첫째, 말다툼을 하지 말라. (14절)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를 망하게 한다.”
왜, 말다툼을 하는가?

각자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대부분은,
상대로부터 자신이 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 자존심 감정의 상함, 상대의 의중을 오해한 울분, 자신의 생각은 옳고 상대는 잘못이란 생각에, 자기주장을 하다가 서로 대립이 되어 말다툼이 된다.

그러나 착한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아무리 억울하고 자존심 감정이 상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 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을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을 참고 감당해 나간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알아주시며, 하늘의 위로와 신령한 상급을 합당하게 내려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직장, 교회나 그 어디에서 누구와의 관계든지 말다툼을 피하고 참아내는 것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며, 주께서는 이런 사람을 어디에서나 존귀하게 쓰고 세워 주신다.

둘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1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인데 성경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뜻 성경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찌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겠는가?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은 사단과 악령에 사로잡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뻘뻘어지게 믿고 나간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죄악의 더러움과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순종할 때 깨끗해져 쓰임을 받는다.

셋째,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16절)

사람의 생각 아집과 이념, 그 시대를 주름잡는 타락한 문화와 미신적 풍습, 거스르기 힘든 유행과 대세 등이 다 망령되고 헛된 것들이다. 그런 것들이 사람보기에는 제법 합리적이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징벌 받는 망령되고 헛된 것들이다.
여기서 벗어나날수록 깨끗한 것이 되어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넷째, 불의에서 떠나라. (19절)

믿음과 말씀에 어긋난 일들은 다 불의한 것이다.
마음에 거리낌이 되며 자책이 되는 불의한 일들을 끊어 버리고 성경말씀에 비추어 올바른 언행심사를 이루어 가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몸과 맘이 깨끗해져 귀하게 쓰임 받는다.
나무나 질그릇이도 깨끗하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
금 은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쓰임 받지 못하는 천한 것이 되어 축복의 자리에서 밀려난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쓰임 받음은 인생 최고의 영광이며 축복이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희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 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11 (새 찬송가 1, 42)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 아 멘 -

찬 송 : 85 (새 찬송가 85)

기 도 : 김정한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마태복음 6 : 1 ~ 4 신약 8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하나님께 받을 상을 사모하라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208 (새 찬송가 289)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홍의남 장로)

☆ 송 영 : 4 (새 찬송가 4)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2 월 안내]

남, 김정환 조상희 공옥열

여, 노인숙 최은희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사 회 : 조상희 집사 (다음 김철진 집사)

기 도 : 임수정 집사 (다음 정명숙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사무엘상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박종복 집사 (다음 박영수 집사)

기 도 : 채해경 집사 (다음 박인순 집사)

말씀증거 : 김상진 목사 (이사야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인도 : 목사 (열왕기상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본 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상)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상)

청 년 부 예 배 (주 일 오전 10시) 김정한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월례 제직모임.

오후 2시 예배 후 3시 10분에 이 자리에서.

제직들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 금요기도회.

2월 8일 밤 8시, 금요기도회는

각 교구장 구역장 연합으로 열립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3. 새해 심방예배.

2013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심방예배를 드립니다.

청원을 하시면 좋습니다.(681~7001, 010~3861~7009)

가정, 직장, 사업체, 회사 등 어느 곳이나 좋습니다.

4. 신앙성장 프로그램.

2013년 “신앙성장 프로그램” 책자가 나왔습니다.

모두 함께 참여하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며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황 정 님 윤정원, 승원

풍암 @

☺ 임용아 님

원신 @

지난 주 말씀 요약 (2 / 3) 2013

제 목 : 하나님께 받을 상을 사모하라
성경말씀 : 마태복음 6 : 1 ~ 4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義)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의(義)는 원어 “디카이오쉬넨”(δικαιοσύνην)인데, 단순히 의로움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말씀 안에서 행하는 착하고 아름다운 모든 말과 행위를 다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순결, 덕, 믿음, 착함, 의무, 거룩함, 희생, 봉사, 올바름, 정의, 성실, 인내, 사랑, 화평, 겸손, 헌금, 선행 등 인간의 성품과 생활의 좋은 것의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 ① 처음 시작부터 계획적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서 칭찬과 영광과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여 하는 것이다.
- ② 시작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된다고 시작했는데, 선행과 의를 행한 후, 은근히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몰라주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다.
- ③ 하나님 한 분 알려주시면 된다고 의와 선행을 했는데, 사람들의 반대와 비난이 일어났다. 이때, 의와 선행한 것을 후회하거나 멈추거나,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일어난다면 이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된다.
“하나님 한 분 알려주시면 된다.” 하고 의를 행한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주던 몰라주던, 사람들이 비난을 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그에 따르는 마음의 요동이나 갈등이 없이 담대하며 겸손하게 꾸준히 의를 행해 나가는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사람의 생각과 그 중심에는 우리 주 하나님은 아니 계시고, 이미 사람 생각으로 차 있으며, 사람에게 잘 보여서, 사람에게 보상을 받고,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며,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보상이나 명예나 어떤 형태로든 이미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한 일이 제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로 업적을 이루었다 하여도, 하나님께로는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몇 가지를 말씀하셨으니,
2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5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했으며,
16절에서는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 하셨다.

이웃을 사랑하는 구제와 헌금에 대한 말씀에서,

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사랑을 나누는 일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좋은 일이라도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알려주시면 된다, 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겸손하게 의를 행하는 것이다.

남에게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에 세워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는 것이다.

②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때 당시는 교회(회당)에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높여주고 알려주며, 또한 다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뜻에서 크게 나팔을 불어 주었다고 한다.

오늘날 나팔은 불어주지 않지만 그와 비슷한 일들을 교회에서 행하고 있으니, 목사가 강대상에서 헌금한 사람만 호명하며 공개적으로 축복기도를 해주는 것이나, 후보나 어떤 인쇄물에 헌금한 사람을 일일이 기록하여 발표해 주는 것들이다.

③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잘 생각해 보자.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개인이나 교회적으로 행한 의나 선행을 의와 선을 행한 당사자 자신들도 잊어버리라는 뜻이 있다.

자신이 한 헌금이나 의로운 일이나 구제와 선행을 기억하며 “나는 이렇게 의와 선을 행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했다” “누구를 이렇게 도와 줬다” 고 자위(自慰)하거나 자축하거나 스스로 만족한 마음을 갖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역시 순수한 믿음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누가17:7~10) 라는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믿음의 자세요, 복 받을 자세인 것이다.

이를 확증하는 말씀이 더 있으니, 마태 25:31~40 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데, 의인들에게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고 칭찬을 하신다. 그러나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반문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잘못 알고 계셨을까? 아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아시고 칭찬과 상급을 주시고자 하는데, 의인들 자신은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하고 잊고 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의와 선을 은밀하게 행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아 주시는 축복은 최고의 축복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이

다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 @ 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병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6. 9 (새 찬송가 2, 8)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라

◎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에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 아 멘 -

찬 송 : 52 (새 찬송가 138)

기 도 : 목 사

성경봉독 : 목 사 : 에베소서 5 : 5 ~ 10 신약 315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466 (새 찬송가 408)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홍의남 장로)

☆ 송 영 : 8 (새 찬송가 6)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2 월 안내]

남, 김정환 조상희 공옥렬

여, 노인숙 최은희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사 회 : 김철진 집사 (다음 윤문석 집사)

기 도 : 정명숙 집사 (다음 최은희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사무엘상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박영수 집사 (다음 이경순 집사)

기 도 : 박인순 집사 (다음 정창주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이사야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인도 : 목사 (열왕기상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상)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상)

청 년 부 예 배 (주 일 오전 10시) 김정환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새 해 심방예배.

2013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심방예배를 드립니다.

청원을 하시면 좋습니다.(681~7001, 010~3861~7009)

가정, 직장, 사업체, 회사 등 어느 곳이나 좋습니다.

2. 금 요 기 도 회.

2월 15일 밤 8시, 금요기도회는

호산나 찬양대 주관으로 열립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3. 신 앙 성 장 프 로 그 램.

2013년 “신앙성장 프로그램” 책자가 나왔습니다.

모두 함께 참여하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며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노기준 님

부영 @

☺ 이소연 님

증홍 @

☺ 나미옥 님

주월 @